

투시경

11월 17일이외에 외무부에
정신대 8층 감시실에서
이해하기 힘든 이상
이 벌어졌다.
태평양전쟁 희생자
등 일제 강점기의 피해
에서 관계자들을 출석시
켜야 한다는 한
과 이를 제지하다시피
는 또 다른 여당원 사
가 바르다.
성 의원(민자)은 18일
담변이 시작되기 직전

1991. 9. 20

사 증인 외면한 국감현장

유엔가입 자축행사를
회의를 서둘러 끝내려
통일위 동료의원들의
받으며 긴급 동의를 냈
원은 "내일(19일)은 일
정공피해자인 박종원
신대 체험자인 김학순
태평양전쟁유족회의
가 위원회에 출석해
하게 돼 있는 만큼 아
6시 15분쯤 정부
을 듣고 오늘 회
차"고 제안했다.
또 일제의 피해자들인
순전히 자진해서 출석
했으며, 수차례의 민
갔노라고 여러차례 강
위원장을 대신해 사

회를 맡고 있던 이진우 의원(민
자)은 "정신대 문제는 이미 국
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으니 그
때 증언을 듣기로 하자"고 난
색을 표한 뒤 권 의원의 추가
발언을 막는 등 다른 여당 의
원들의 용원을 받아 회의를 끝
내버렸다.
권 의원은 19일 회의에서도
다시 시도했지만 마치 달걀로
바위를 치는 격이었으며 여당
의원들뿐 아니라 야당의원들의
태도에는 한치도 변함이 없었
다.
권 의원에 따르면 참고인으로
증언을 자청한 박종원씨는
태평양전쟁 당시 남태평양의
외판섬에 끌려가 노역을 당하

1991. 9. 20

던 중 1백여명의 한국인이 일
본군에 의해 식용으로 도살당
하는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
살아남은, 아직 국내외에 알려
지지 않은 역사의 증인이라는
것이다. 박씨는 현재 일본 언
론매체의 취재에 응하고 있어
그런 만행이 곧 일본 언론에
크게 보도될 것이라고 했다.
이렇게 귀중한 증언을 국회
의 소관 위원회가 기피하고 있
는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
들여야 할까. 정부의 미지근한
대일본 저자세 외교를 지적하
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
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
권 의원은 좌절 끝에 이렇게
중얼거렸다.
"저도 여당원이지만, 이젠
신물이 납니다." <박종문 기자>

일본에 배상 소송 희생 한인 유족등 50명

【도쿄=연합】일본의 침략전쟁으
로 희생된 한인 출신 전 일본군
인과 군속·유족 등 50여명이 한
꺼번에 오는 12월 일본정부를 상
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
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낼 예정
이라고 일본 <마이니치신문>이 2
0일 보도했다.
아시아 국가의 희생자들이 대
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
이 처음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
묻는 본격적인 소송이 될 것으로
알려졌다.

소송의 한쪽은 대부분 태평
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지
만 정신대(중군위안부) 출신 여
성 한명(66)도 포함돼 정신대 문
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다뤄지
게 될 전망이다 <마이니치신문>
은 설명했다.

1991. 9. 21

東京地方法院 東京地方裁判所
【東京地裁】2차대전때 日本
에 강제연행된 일본군현병
과 경찰, 기안출로로부터
갖은 학대와 수모를 당했
던 金景錫씨(65) 春川市後
坪동 엘리트아파트106
동 406호기 3일 당시
자신이 근무했던 日本鋼管
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
소송을 도쿄지방법판소에
제기했다.
일제시대에 강제연행된
韓人이 일본군의 불법행위
에 대해 기안출을 상대로
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
이 처음이어서 재판결과가
 주목된다.
소장에 따르면 金씨는
지난 1942년 10월 일본
으로 강제연행돼 가와사키
NKK 제철소에서 크레인
조작 작업원으로 일했다.
당시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
한인은 2천여명으로 하루
12~18시간씩 노동을 강요
당했으며 식사도 제대로
하지 못하는 비참한 나날
을 보냈다.
1943년 4월 「한인
노동자를 학대하는 것은
부당하다」는 유언을 이배

日기업
상대로
損害賠償訴訟

일제때 강제노역 60代
1/3 동아
1991. 10. 04

하고 주모자로 보이는 金
씨등 한인노동자 30여명을
체포, 은갖고 문과 폭행을
가했다.
金씨는 일본군의 강제노
역과 불법행위로 자신이
본 정신적, 육체적 피해
에 대한 보상액을 환산할
경우 9천9백만원에 상당
하지만 이 시대 사정상 1
차로 99만원을 청구한다고
밝혔다.